

# 전북대, 글로벌30 예비지정 대학 선정

## 전북도내 유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수요자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사업, 이른바 글로벌30 사업 예비지정 대학에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31일 마감된 2023년 글로벌30 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 이 중 15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선정됐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과 지역 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을 비전으로 밀착 수 있고, 살고 싶은 지·산·학·연 공동체 만들기, '학생 중심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플래그십 대학 만들기', '유학생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 대학 만들기'를 혁신 모델로 제안했다.

이를 위한 새만금 거점 대학산업 도시 구축을 위한 K-방위산업 클러스터, 2차전지 특화지구, 센서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마련해 전북지역 대학들과 공동 운영하고, 또 지역의 14개 기초자치단체 발전을 견인할 JBNU 지역발전연구원 설립 추진 계획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 전북대는 오는 10월 본 지정을 위해 예비 지정된 기획서를 토대로 구체적 실행 계획서를 작성해 9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전라북도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자치체, 지역 연구원 기업들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대 글로벌30 사업 예비지정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양오봉 총장은 "우리 대학이 글로벌30 사업에 예비지정 돼 기쁘다며 '최선을 다해 10월 최종 지정까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20일 오후 2시 대학본부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RISE 기반 지역 협력·혁신 통해 전북 주력산업 증진

### 지역상생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 혁신모델 제시

### 지역 대학들과의 상생 방안, 지역발전 견인에 '구정적'

지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 총장은 대학 내부 혁신 방안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전북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과대학이나 학과 간 벽을 과감히 허물어 신입생 모집 단위를 광역화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유사 교과목 통

합과 지역과 사회 수요에 맞는 새로운 교과목 개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교된 지방대학 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재생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대학 내부 벽 허물기 외에도 지역대학 간 벽도 과감히 허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대가 갖고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연구시설 및 장비, 대학 내 편의시설을 지역 내 학생들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대학 사업 선정 시 지원되는 1,000억원의 예산을 지역의 다른 대학들과 공유하고, 지역대학 간 연계를 지역기업까지 확장해 새만금 부지에 이차전지산업, K-방위산업 등의 지역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업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대상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유학생 5천명을 전북대에 유치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현재 동남아 지역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캠퍼스 구축을 추진 중이며, 또한 아프리카와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최근 모로코 명문대학에 한국학과 교육 및 연구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양 총장은 "우리 대학이 최종 선정되면 전북지역 모든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글로벌30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을 전북지역 대학에 지원해 도내 모든 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오는 9월 제출할 최종 계획서에 도내 대학들과의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담아 다른 대학들도 차후에 글로벌3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글로벌30 예비지정 '고배'

### "담대한 혁신·벽 허물기는 계속"

#### 전국 15개 혁신기획서에 포함 안돼

#### "내년 선정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교육부의 글로벌 예비지정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는 20일 글로벌30 대학 예비지정 평가를 통해 총 15개의 혁신기획서를 선정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가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 15개 혁신기획서에 19개 대학이 이번 예비 지정에 선정되었다.

전주대학교는 지난달 31일 마감된 글로벌30 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앞서, 전주대학교, 예수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의 대통합을 선언하며 담대한 혁신과 교육혁신, 지역성장의 중심으로 역할을 위해 많은 활동과 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글로벌30 대학 예비지정 평가를 위한 혁신기획서에도 대학법인 간 통합을 포함하여 3개 대학(전주대, 예수대, 전주비전대) 통합의 내용과 함께 다양한 혁신 계획을 보고서에 담았으나 15개 혁신기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주대학교 황인수 부총장은 "전주대학교가 글로벌30 예비지정을 위해 다양한 혁신계획과 노력을 보고서에 담았지만, 전국 15개 혁신기획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주대학교가 그간 쌓아온 여러 교육혁신의 실적과 벽 허물기 노력의 바탕 위에, 향후 지역대학으로서 지역을 혁신하고 성장시킬 혁신적 계획과 구체적 실행방안들을 통해 내년 글로벌30 선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30 대학 예비지정에는 지역별로 강원 3건, 경남 2건, 경북 3건, 충북 1건, 충남 1건, 울산 1건, 부산 1건, 전북 1건, 광주 1건, 전남 1건으로 총 15건이 예비 지정되었으며, 국·사립 구분으로는 국립대 8건(12개 대학), 사립대 7건(7개 대학)이고, 공동신청 여부에 따라서는 공동 4건(국립대 8), 단독 11건(국립대 4, 사립대 7)으로 선정됐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7월 1일자 정기인사 단행

승진 58명 · 전보 320명 · 신규임용 8명 등 총 501명 규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 규모는 승진 58명(4급 2명, 6급 36명, 7급 13명, 8급 7명), 전보 320명(4급 1명, 5급 20명, 6급 95명, 7급 138명, 8급 59명, 9급 4명), 신규임용 8명 등 총 501명이다.

이번 인사는 주요 정책 추진에 적합하도록 업무의 특성·직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능한 인재를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신규임용 공무원 발령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간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했다.

먼저 부안교육문화회관장에 안홍일 서기관(현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이 전보 발령됐다. 남원교육문화회관장에는 박수진 재무과 사무관을, 정책기획·조정 담당에 이상곤 사무관은 각각 사기관으로 승진 발령됐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보는



안홍일



박수진



이상곤

본인 희망지역과 업무의 특성·직무능력·희망지·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능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신규임용 공무원 발령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기간 및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정기인사는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면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성공시켜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김영찬

이태승

## 대한전기학회 전력계통 춘계학술 '우수논문상'

### 전북대 전력망연구실

#### 김영찬 · 이태승 대학생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전력망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최근 열린 대한전기학회 전력계통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학회에서 김영찬 학생(석사과정)과 이태승 학생(학·석사 연계 과정)은 각각 '재생 발전원 수용증가에 따른 대규모 발전단지 SPS 운영방안 영향 분석'과 'NERC의 CPSI 지표를 이용한 국내 전력계통 주파수 제어 성능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두 연구들은 국내 재생발전원 급증에 따라 전력계통에서 준비해야 하는 고장 과과방지 장치의 운영방안과, 주파수 제어 성능평가에 대해 국내의 실제 운영현황과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북대 전력망연구실이 합천 전력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통해 도출한 결과와 연구실의 장비로 직접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로, 전북대의 높은 연구 수준과 산학연 협력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정은성 기자

\*SPS : 765kV 송전선로 탈락 고장과 같은 가혹한 조건에서 고장의 파급을 방지하여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비상 대응 장치.

## "현장 교사 수업나눔 문화 확산"

### 도교육청, 수업혁신 네트워킹

#### 분과별 수업사례 나눔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창조나래(별관) 4회의실에서 2023년 수업혁신 네트워킹 분과별 수업사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수업 성장을 위한 교육혁신공동체로, 매월 1회 이상 자발적인 모임을 갖는 교사연수회다. 총 25개 분과에 2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수업나눔에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수업 모형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교육에 필요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 교육감은 "수업혁신은 현장 교사들의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수업혁신 네트워킹 분과활동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실천적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창조나래(별관) 4회의실에서 2023년 수업혁신 네트워킹 분과별 수업사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수업혁신 네트워킹 25개 분과

중 국어, 역사, 수학, 음악 등 4개 분과에서 실천한 수업나눔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학교 안전사고 제로' 나선다

### 학교장 대상 예방 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 8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 현장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서는 2023학년도 학생 안전교육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안전교육,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도내 안전체험을 위한 안전체험관 설립 계획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여름철 자연재난(호우, 태풍, 폭염) 대비 대응체계 및 매뉴얼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도 이뤄졌다. 2022년 도내 학교 산업재해 사례와 주



20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 8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사고 및 학교 현장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연수가 진행됐다.

요 재해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대책, 관리감독자가 중요하게 알고 행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날 하반기부터 지급될 전북 에듀페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급 방법과 시기를 설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올해 첫 시행으로 도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북에듀페이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입학지원금, 학습지

원비 진로지원비를 지급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학생 안전사고 제로·학교 현장 산업재해 제로·학부모 교육비 부담 제로를 위해 교육 현장 구성원들을 살피는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정책, 나의 꿈을 더하다'... 아이디어 공모전

### 도교육청, 내달 14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내가 교육감이라면 '정책, 나의 꿈을 더하다'를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현장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전북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교육공무직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응모방법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akr>)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게시판에 탑재하면 된다.

이후 효과성·실시가능성·창의성·계속성·적용범위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8월 29일 발표된다. /정은성 기자

이와 함께 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만70세 이상 고평가자, 입산부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문자로 신청받아 발급된 증명명사료를 직접 방문 전달하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정은성 기자

이행이행 때 문자어때?는 민원인이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응모방법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akr>)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게시판에 탑재하면 된다.

이후 효과성·실시가능성·창의성·계속성·적용범위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8월 29일 발표된다. /정은성 기자

이와 함께 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만70세 이상 고평가자, 입산부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문자로 신청받아 발급된 증명명사료를 직접 방문 전달하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정은성 기자

이행이행 때 문자어때?는 민원인이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응모방법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akr>)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게시판에 탑재하면 된다.

이후 효과성·실시가능성·창의성·계속성·적용범위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수상자는 8월 29일 발표된다. /정은성 기자